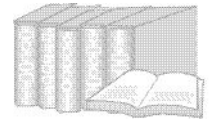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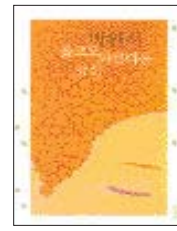
북스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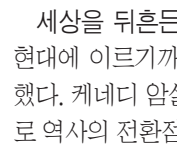
인간사를 빼닮은 동물의 세계 그 속에 비친 우리들의 자화상



새책



올고도 아름다운 당신=소설가 박완서가 지난 96년부터 2년간 천주교 '서울주보'에 연재했던 목사의 글을 엮어 재출간했다. 오십대 중반에 영세를 받고 가톨릭에 입교한 저자의 신앙고백서다. <열림원·9천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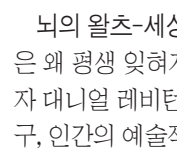
세상을 뒤엎든 뜻밖의 미스터리-외문에 빠진 세계사=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뒤엎었던 사건을 현상감 있게 재구성했다. 케네디 암살 사건의 배후 등 흥미를 끌만한 사건 등 각 시대별 로 역사의 전환점이 됐던 역사 속의 사건들이 소개됐다. <두리미디어·1만2천원>



작가는 왜 쓰는가=소설 '남태평양 이야기'로 폴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소설가 제임스 미치너가 50년간의 문학인생을 회고했다. 저자가 글쓰기에 임문해 대가로서 성공하기까지 작가 수업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예담·1만2천원>



천재들은 다 미쳤다=500년 유럽문화사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들춰냈다. 다빈치, 피카소, 쇼펜하우어, 베토벤, 코코 샤넬, 존 레논, 엘비스 프레슬리 등 천재들의 결벽증이나 상도증, 노출증과 같은 믿을 수 없는 열기 행각들을 보여준다. <수다·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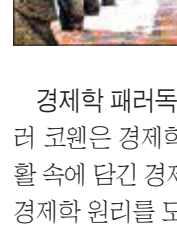
뇌의 왈츠-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각='어린 시절 들었던 음악은 왜 평생 잊혀지지 않을까?' 신경과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저자 대니얼 레비틴이 음악에 대해 인간의 뇌가 움직이는 연관성을 탐구, 인간의 예술적 능력을 뇌과학으로 풀어냈다. <도서출판 마티·2만2천원>



아름다운의 과학-미인 불패, 새로운 권력의 발견='예쁘면 다 착하다' 등의 통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을까? 머리 좋은 사람 위에 예쁜 사람이 있다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비롯되며 아름다운 역시 키나 몸무게처럼 정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프론트시스·1만5천원>



길 밖의 길=1968년 '사상계'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한 중진 작가 유순하의 장편소설. 힌두와 인가 문명을 배경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 엮어가는 사랑과 삶을 그렸다. <책세상·1만2천원>



경제학 패러독스=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타이러 코웬은 경제학뿐 아니라 문화인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 생활 속에 담긴 경제 원리와 인간의 의도를 해석한다. 일상의 의문들을 경제학 원리를 도입해 쉽게 해결한다. <랜덤하우스·1만4천원>



한국민주주의의 뉴 패러다임=전남대학교 윤리학과 선후대 교수가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민주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해 한국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련되고 정교한 제도적인 디자인을 통해 성숙한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명인문화사·2만3천원>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하다

심우장 등 지음·문찬 그림

'황새란 높은 다리가 길어서 우편 배달로 돌러라. 제비란 높은 뺨시가 고와 기생방으로 돌러라...'



생김새의 특징을 잡아 동물과 인간의 직업을 연결시켜 놓은 전래동요의 한 구절이다. 말쑥한 차림새와 세련된 매너로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를 흔히 '제비'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도 제비는 '아름다운 뺨시' 때문에 기생방으로 돌러야 하는 동물이었나보다.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하다' 이야기 동물원은 서울대 대학원 국문과에서 구비문학을 전공한 심우장 등 5명의 저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옛 이야기 속에 동물이 어떻게 비쳐졌는가를 설명한 책이다.

저자들은 "인간사와 똑 닮은 동물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문제를 말하게 풀었다"며 "옛 이야기 속 동물들은 옛된 욕심이 화를 부르고 사랑은 미움이 되며 때로는 모자람이 아름답다는 교훈을 준다"고 말한다.

책은 우리 전통 설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동물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과 의미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들여다 봤다.

설화에서 구백이라는 호랑이와 싸워 이긴 비루떡

은(개, 말 따위가 병에 걸려 털이 빠지는 현상)개 '비루'가 '이야기 동물원'이라는 가상의 동물원을 독자들에게 안내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책은 옛된 욕심으로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인간의 속성을 다룬 1장 '동물 유래관'을 비롯해 야한 동물관, 변신 동물관, 신성 동물관, 동물 대결관, 숨은 동물관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책을 통해 옛 선인들의 동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느낄 수 있다. 심지어 동물들이 우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 대상은 소, 개, 돼지뿐만 아니라 이나 비둘, 빈대, 개미와 같이 미미한 존재들까지 다양하다.

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생태적인 특성을 살펴 사람 사는 문채와 은유적으로 연결해 그럴싸하게 표현해냈다.

예컨대 횡간으로 유명한 광어가 유난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이 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새우는 웃다가 허리가 지금처럼 구부러진 것이다. 그러면서 남의 잘못을 통쾌해 하던 새우는 벌을 받은 것이라고 풀이를 덧붙인다.

이밖에도 여우를 놀리다 풍자가 짙아진 메추리, 엉덩이가 빨개진 원숭이, 천적이 된 닭과 지네 등 여러 동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러서 이렇게 다양한 설화들을 모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설화를 통해 모자람이 때로는 미덕일 수 있고, 진심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세상의 이치도 느낄 수 있다.

기존의 설화를 다룬 책들과 달리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이해를 돕는 세밀화, 만화풍의 그림 등



호랑이에게 있어 개는 상대도 안 되는 보잘 것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설화 속에서의 개는 기지를 발휘해 호랑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다양한 볼거리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준다.

덤으로 각 장이 끝나는 사이사이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민요나 속담, 수수께끼, 한자 등에 숨은 동물 이야기도 볼 수 있다.

<책과함께·1만4천800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연암과 떠나는 장쾌한 연경 여행 ... 비주얼로 생생하게 되살려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상·하

박지원 지음·고미숙 등 엮음

최근 가장 널리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가 '유목민'(nomad)일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용어다.

고전문학을 전공한 고미숙씨 등이 펴낸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상·하'는 우리 역사상 노마드적 성향을 보인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암 박지원과 그의 저서 '열하일기'를 다뤘다.

과거 시험 도중 너무 그림만 그리고 시험장을 뛰쳐나와 버린 박지원은 1780년 5월25일 팔촌 형을 따라 연경 여행을 나섰다. 청나라 건륭제의 철승 축하 사절로 연경(지금의 베이징)에 가게 된 것이다. 1천



178km 가 넘는 길을 6개월 동안 오간 대장정이었다. 박지원은 어딜 가든지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하인 이든 장사꾼이든 대화를 나누고, 들은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겼다. 편자들은 열하일기 속의 여행(떠돌)에 대해 "지식은 자꾸 사람을 고립시키는 힘이 있는데, 박지원의 정체성을 찾고 지식을 확장하며 떠돌아 다녔다"고 정의한다.

한 해 한국인 출국자 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지만 여행이 소비를 위한 일종의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세태를 200여년 전에 써진 기행문을 통해 되짚어 보

고 있는 것이다.

또 기존에 출간된 열하일기 관련 서적이 단순한 어정 중심이었다면 이 책은 다소 파분할 수 있는 여정을 따로 묶은 뒤 그 관련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당시의 관직과 인물, 사건들을 다양한 삽화를 넣어 설명해 여행기를 읽는 단조로움을 없앴다. 풍부한 그림과 자료 등을 결집한 편집이 돋보이며 읽기도 편하다.

박지원이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는 박진감을 살리기 위해 희곡의 형식을 빌렸다. 편자들이 떠남과 정착이 반복되는 현대를 사는 독자들에게 열하일기를 권하는 이유는 '마당에서 북 것'과 담 위에서 본 것'이 다르고 여행은 무엇을 볼 것이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린비·각권 1만7천원>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매매 및 교환♣
전남 신도청야 일반 상업지, 숙박, 위락시설부지(건축가) 140평/평당 700만/철중가, 상가건물 교환상담 환영
☎ 011-330-9365 (주인직)

솔로몬공인중개사
여수 엑스포전지역
☎ (061)644-9644 ☎ 010-3999-2500
(물건 다량 보유)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분양특지 주거지역 평당: 60만~70만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분양특지 상업지역 평당: 160만~250만원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자연특지 2차선 도로전 조망 경관최고 1200평 평당매가: 20만원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자연특지 도로전 조망 경관최고 1000평 평당매가 15만원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관리지역 2차선 도로전 조망 경관최고 5000평 평당매가: 7만원

토지공사 분양택지
돌산택지지구. 엑스포행사장
위락시설지구. 숙박시설
시세보다 싼 매물 다량보유

돌산지구 토지공사택지매매전문
★매물 다량보유 상담환영★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무량원에서 50m 지점. www.8588949.co.kr)

목욕탕 임대 급히 구함
1. 지 역 : 광주시내
2. 조 건 : 보증금 2억까지 가능, 가스보일러 이더 대출이 적은 물건

시의 농장부지 급히 구함
1. 지 역 : 연암 무안 함평군 내
2. 면 적 : 3-4만평
3. 조 건 : 차량진입이 가능한 밭이나 아산 (신림 밭채 가능한 산)
4. 이용목적 : 밭 직을 재배
5. 가 격 : 상호 협의 후 결정

◀ 상가 건물 구매 ▶
●광산구 우산동 주공아파트 앞, 대지304㎡(92평) 지하1층 지상6층 건물1160.19㎡(351평) 임대보증금 1억8천만 원 월월450만원 매대가 8억원
●광산구 운남동 삼성아파트 정문 앞, 대지548㎡(166평) 지하1층 지상5층 건물921㎡(581.3평) 보증금2억 1000만 원 월1105만원 대출1억 매대가 16억 5천만원

◀ 수익성 좋은 원룸 ▶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인근, 대지933㎡(282평) 건평1299㎡(393평) 월임30실 투룸 6실 주래 2실 보증금4억 2800만 원 월 653만원 대출 4억원, 매대가 11억5천만원
●광산구 신기동 신축건물 대지208㎡(63평) 건평380㎡(115평) 월임9 투룸3 매대가 4억 2천만원

저희 업소는 20년 가까운 중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토지의 매매를 전문적으로 중개 합니다.
부동산 관련 직종의 전문가와 입지선정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병원, 공장, 유휴, 식당, 모텔, 차고지, 전월주택, 주유소및가스충전소 부지, 투자용토지, 상가건물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동도서관사거리 농협앞문 2층)

건물
●주월동 5억 평원원매매
D8P 2150P 지상층까지 50가방
●798천 원급 매매
호남대 부근 광산구 서동동 대270P 2077 보19억9천 원4602만 원
●13억 원 매매 20x10m코너 전대 후문 대110P 2320P 보29억 원 4500만 원
●19억 원 매매 17만 부지 46x6m코너 보증금 1억 4500만원 포함
●13억 원 매매 대110P 2320P 보29억 원 4500만 원
●상업지역 13억 매매 대140P 2510P 보증금 2억 4500만원
●17억 원 매출 12만 평 부지 보증금 1억5천 원 7500만원 포함 아파트 7000세대 상권
●28억 원 상업지역 매매 대18P 2880P 보증금 5억 1800만원
●41억 원 상업지역 매매 대200P 전, 100P 보12억 4000만원
●47억 원 매매 대900P 전, 100P 보10억 3000만 원 보증금 2억 포함
●63억 원 매매 대820P 전, 800P 보21억 4000만원
●120억 원 공공부지 공인지역 12,000P 현지 공장 운영중

주요소 전문중개
●8억 주유소 매매 대300P 35m도로전
●13억 시내 주유소 매매 대400P 900평 800만 원 포함
●7억 5천 고시원 매매 대115P 22420P 지하 1층 지상 5층 600 평
●광비 공공부지 600P 상권지역 35m 도로전 P270만원
●임대용 그라운드 1500P P당 5만!

●7억 5천 고시원 매매
대지 75P 전150P 445개 월세1012만원 전대후문만

●7억 5천 고시원 매매
각화동에서 10분 6억7천 대지1400P 건물 500P APT1800세대 마트겸 목욕탕 대120P 전70P 현지 주차장중 대2억

●7억 5천 고시원 매매
139평 36억
●목포시내 2차선 도로전 목포시내 1500P 2억

●7억 5천 고시원 매매
대지 75P 전150P 445개 월세1012만원 전대후문만

●7억 5천 고시원 매매
139평 36억
●목포시내 2차선 도로전 목포시내 1500P 2억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대) 천절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명원경매·공매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반값에 산다!!

1. **운천저수지 신축6층건물 긴급매매**
대지:243평 건물:지상6층(신축건물) 병원,대형아파트,노래방,카페,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물임. 토지 비로 옆에 주변 아파트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매우 오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운천저수지 개발로 부지가치가 급상승할 곳이 틀림없는 곳임
경매원 감정가:19억원
긴급매가:14억원

2. **월산동 [구 남향호텔] 긴급 매각**
대지:90평 건물:지하1층,유형노래방,지상 8층:현,도넛,아름다운 월산동로타리 농협 비로뒷면-정면타시엔! 도로변소속 시유, 병원, 모텔, 임대용건물로 건물리모델링 활용가능 지역임
경매원 감정가:12억원
긴급매가:8억5천만
만타가: 최신시설로 리모델링 공사후 모텔로 임대가능

●7억 5천 고시원 매매
139평 36억
●목포시내 2차선 도로전 목포시내 1500P 2억

2007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극장식 웨딩홀) 만족도!!(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선정!!

광주광역시 동구 화순-나주-영암-해남지역 환영!!
●결혼, 회갑연, 칠순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각종 행사를 호텔부페식으로...

센트럴시티웨딩컨벤션
☎ 675-8500
2008년 봄 예식 예약 접수중 (광주대학교 입구)